

음식료 위클리 및 종목 코멘트

음식료

Analyst **김정욱**
02. 6098-6689
6414@meritz.co.kr

음식료 Weekly

메리츠 음식료 김정욱 (6414@meritz.co.kr)

1. 전주 동향

음식료

7월 셋째 주 음식료(식품, 음료, 담배) 주가는 전주 대비 52% 하락. 원/달러 환율은 1,133.8원으로 상승. 곡물가는 옥수수(+7.6% WoW), 소맥(+7.2% WoW), 대두(+4.4% WoW), 원당(+1.5% WoW) 기록. 옥수수는 USDA 7/15기준 작황 보고서에 미국 옥수수 GTE비율이 전주 75%에서 72%로 감소되며 시장의 74% GTE 비율 예상치를 하회. 콘벨트 지역 기상 악화에 대한 우려와 함께 옥수수 가격 전주 대비 76% 상승. 소맥은 주요 생산지인 유럽 및 북해 지역 포함 글로벌 소맥 생산량 감소 우려가 심화되는 가운데 지난주 미국 소맥 수출 판매량이 신기록 1,100만 부셀로 발표되며 전주 대비 소맥 가격 상승폭 확대. 대두는 미-중간 무역 전쟁으로 인해 최근 가격 과도하게 하락했다는 시장 분위기. 브라질산 대두 가격 대비 미국산은 25% 할인된 가격에 판매되며 대중국 수출 수요를 대체한 타 국가들로부터의 대두 수요가 확대된 점이 가격 상승 지지. 원당은 인도 원당 생산 및 재고량 급증 소식에 주춤했던 하락세 지속했으나 주 후반 저가 매수세 및 환매수 물량 유입으로 반등해 전주 대비 1.5% 상승
중국 라이신 가격 단기간 약세 유지. Dacheng 7월 생산량 50% 감소 계획 지속, Dongxiao 증설 생산 물량 8월 출하 예상, Dongfang 생산 중단 상태 유지. 공장 재고 압력이 다소 완화되고 수출 소폭 증가했으나 중국 국내 약세 기조 지속. 메타오닌은 최근 가격 반등 이후 가격 유지. Evonik의 회전율은 전년 동기 대비 향상. Ningxia Ziguang 7월 준순에 15일간 유지 보수 계획. CJ 말레이시아 메티오닌 공장 7월 초 ~ 8월 준순 동안 유지 보수 계획으로 공급 과잉인 중국 국내 메티오닌 공급 완화되며 시장 안정 전망. 쓰레오닌은 중국 제조 업체의 생산 감축으로 재고 압력이 다소 완화되었으나 미-중 무역 분쟁으로 중국산 제품에 대한 미국의 25% 관세율이 대두 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단기간 약세 지속 전망. 트립토판은 생산 감축으로 인한 제한된 재고로 단기간 가격 점진적 상승 예상

국내 이벤트는 1. CJ제일제당, HMR 제품 '햇반컵밥' 출시 3년 만에 누적판매 1억개, 누적매출 2,000억원 기록 2. 오리온, 감자스낵 '포카칩' 국내 누적매출 1조 4,000억원 돌파. '17년 베트남에서 'O'Star(포카칩)'으로 생감자 스낵 시장 점유율 1위 3. KT&G, 켈러형 전자담배 '밀'과 전용 담배 '핏'의 전국 판매점 2배 확대 4. 오리온, '포복칩' 알리페이 및 위챗페이 결제 가능한 자판기 북경과 상해 지하철역에 설치 5월 출시 이후 누적 판매량 1,350만 봉지 기록 5. 전자담배, 상반기 판매량 1억 5천만개 돌파하며 전자담배 시장 점유율 10% 육박 6. 가공식품, 가공식품의 50% 5월 대비 가격 상승. 원당 +2.6% 어육 +2.6% 햄 +1.9% 즉석밥 +8.6% 국수 +3.0% 설당 +6.8% 간장 +3.9% 참기름 +2.6% 우유 +6.2%

2. 금주 전망

음식료: 의견 Overweight, 하반기 전망 HMR, 해외터너라운드로 오리온, 롯데푸드, 매일유업 선호 CJ제일제당, 동원F&B 하반기 터너라운드 전망

오리온은 5월~6월 포복칩 매출액 본격 반영 및 개선된 수익성 효과 지속될 전망. TT채널 대리점 일원화 작업 지속적으로 하반기까지 500여명 추가 구조조정. 하반기 초코파이 가격인상, 건과류 신제품 매출은 추가 성장요인. 마진을 측면에서 서프라이즈는 지속가능성 있다고 판단. 롯데푸드 후레쉬델리카 흑자 전환 지속으로 2분기 식품부문 매출액, 영업이익 성장 지속. 분유 수출은 4-6월 정상화 하반기는 공장 추가 인종으로 매출액 증가 예상. 국내 분유는 매출액 유지 지속. 육가공 부문은 1분기 가격인상 및 전년도 햄버거병 기저로 2분기 이후는 P, Q, C 성장 예상. 매일유업 분유 수출은 1분기 80억원 기록 이후 2분기 100~120억원 흐름 예상. 국내 분유 매출액 감소는 지속되고 있지만 백색시유, 상하목장, 커피음료 등 주류 카데고리 매출 성장도 지속. 2분기는 1분기 대비 마케팅비 지출이 예상되지만 계절성을 반영한 지출이므로 yoy 큰 폭의 증가는 아니라고 판단. CJ제일제당 가공식품의 외형 성장 및 소재 식품의 수익성 개선 지속. 쉬안스 컴퍼니 인수 가능성은 가공식품 매출액 레벨업이 가능한 M&A로 긍정적인 이슈로 판단. 마니커 투자는 이지바이오와의 협업을 위한 140억원 보충금 성격의 투자로 사료부문의 투자 확대로 판단하지는 않음. 해외바이오 부문은 스낵 가격 하락이 우려스럽지만 가격 하락이 후 버덕 시그널(가동률 하락, 2-3분기 수요 회복 등) 발생하는 상황. 아미노산 가격 반등이 추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판단 동원F&B 1분기 원가 부담에 따른 부진 이후 매출액 성장은 지속. 하반기 참여가, 치즈원가 전년 대비 하락 전환으로 원가 개선 기대

3. 관심종목 & 종목 코멘트

관심종목

오리온 (071560)

18. 4-5월 기준 2분기 가이던스 매출액 4,500억원, 영업이익 500억원 신제품 성과 및 6월 실적에 따라 상황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 중국 포복칩은 5월 부터 입점 매출 발생, 6월 본격화 예상. 포복칩 5월 매출액은 25~30억원 수준 5월 초 상해 출시, 5월 말 북경 출시. 딸기 초코파이 20~30억원 매출, 혼다 칩 18억원 매출 등 신제품 매출 기여는 점진적으로 확대. 예상비용 집행 타이트하게 유지하는 상황으로 과도한 비용 집행 우려는 여전히 적음. MT 경소상 400개, TT 경소상 400개 감축으로 경소상 사이즈 1,000개 수준으로 감소. TT채널의 대리점 일원화 작업도 지속. 한국/베트남 매출액 호조. 국내는 18.7월 그레놀라 출시, 농협과 JV로 연간 200억원 기대. 율해는 반기 매출로 100억원 예상. 국내 건강기능식품은 연말에 출시가능. 연간 70~80억원 매출액 전망. 베트남은 7-8% 매출 성장 지속 중이며 내수 시장에서는 스낵/파이류 카테고리 성장 주도. 하반기 쌀과자 신제품, 19년 양산량 출시 계획. 러시아는 약성 딜러 교체 2분기 이어지지만 상반기에 대부분 마무리 되어 하반기 다시 직거래 딜러 늘려 전사에 영향은 제한적일 전망

선진 (136490)

제2 GGP가동에 따른 비육돈 확대는 20년 상반기 마무리. 비육돈 규모는 동기간 계열화 비육돈 기준 기준 50만두에서 최대 80만두로 확대. 양돈 사업에서 캔드레이스, 요크셔 기준 제1GGP 550두 규모, 제2GGP 350두 규모. GGP 모돈은 550두에서 900두로 63.6% 증가 효과. 증가된 GGP 모돈으로 비육돈 생산 확대는 18년 하반기부터 반영. 마무리는 20년 상반기 예상. 동기간 계열화 비육돈 기준 기준 50만두에서 최대 80만두로 확대 전망. 비계열화 비육돈 기준 70만두에서 최대 110만두로 확대. 양돈 규모 증가, 사료 규모 증가 예상되는 가운데 영업이익 확대 여부는 돈가 레벨에 따라 결정될 전망. 돈가 하락에 따른 수익성 악화는 단기 위험 요인이나 시장 재편으로 이어질 경우 장기적인 기회 요인으로 판단

Compliance Notice

본 자료는 작성일 현재 사전고지와 관련한 사항이 없습니다. 당사는 본 자료에 언급된 종목과 계열회사의 관계가 없으며 2018년 7월 23일 현재 본 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유가증권(DR, CB, IPO, 시장조성 등) 발행 관련하여 지난 6개월 간 주간사로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당사는 2018년 7월 23일 현재 본 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당사의 조사분석 담당자는 2018년 7월 23일 현재 본 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에 기재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작성자: 김정욱)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